

마우리아 왕조와 불교의 전파

교과서를 읽다가 막히는 질문 12가지

이 단원의 질문

불교를 배우다 보면 아소카왕의 전쟁, 돌기둥, 탑 이야기가 함께 나와요. 한 왕의 후원이 불교가 전해지는 데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불교가 다른 지역에 자리 잡으려면 또 무엇이 필요했는지 살펴볼게요.

-
- Q01 마우리아 왕조와 아소카왕
 - Q02 ‘인도 최초의 통일’이라는 말의 뜻
 - Q03 전쟁에서 이긴 왕이 후회한 까닭
 - Q04 다르마와 불교의 관계
 - Q05 돌기둥에 왕의 뜻을 새긴 이유
 - Q06 백성을 돌보는 정치와 왕권
 - Q07 불교 탑과 승려를 후원한 이유
 - Q08 스리랑카로 전해진 불교
 - Q09 상좌부 불교와 개인의 해탈
 - Q10 동남아시아의 불교와 시간의 흐름
 - Q11 왕조가 쇠퇴한 뒤에도 이어진 불교
 - Q12 오늘날 인도에 남은 아소카왕 시대의 상징
-

Q01 마우리아 왕조는 어떤 나라였고, 아소카왕은 누구인가요?

답

마우리아 왕조는 기원전 4세기에 찬드라굽타 마우리아가 세운 왕조이며, 아소카왕은 기원전 3세기에 이 왕조의 영토를 크게 넓히고 불교를 후원한 왕이에요.

왕조는 한 가문이 왕위를 이어 가며 나라를 다스리는 체제를 말해요. ‘마우리아’는 왕조의 이름이고, ‘아소카’는 그 왕조에 속한 한 왕의 이름이에요. 아소카왕이 마우리아 왕조를 처음 세운 것은 아니에요.

찬드라굽타 마우리아는 인도 북부의 마가다 지역을 중심으로 나라를 세웠어요. 아소카왕은 그의 손자였어요. 마우리아 왕조는 여러 지역을 넓게 지배한 제국으로 성장했지요. 제국은 넓은 영토와 여러 집단을 지배하는 큰 나라를 뜻해요.

불교는 아소카왕보다 앞서 석가모니의 가르침에서 시작되었어요. 아소카왕은 불교를 만든 사람이 아니라, 이미 있던 불교를 믿고 그 활동을 도운 왕이에요. 종교가 처음 생기는 일과 왕의 후원으로 더 널리 알려지는 일은 구분할 수 있어요.

Q02 ‘인도 최초의 통일 왕조’라면 지금의 인도 땅을 전부 차지했다는 뜻인가요?

답

아니에요. 마우리아 왕조는 인도 북부를 중심으로 인도 아대륙의 넓은 지역을 통합했지만, 남부의 일부 나라들은 그 지배 밖에 남아 있었어요.

인도 아대륙은 오늘날의 인도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이 있는 남아시아의 큰 육지 지역을 가리켜요. ‘아대륙’은 대륙의 일부이면서도 지리적으로 뚜렷한 특징을 가진 넓은 지역이라는 뜻이에요. 고대 인도의 범위를 오늘날 인도라는 한 나라의 국경과 똑같이 생각하면 헛갈릴 수 있어요.

마우리아 왕조 이전에도 인도에는 여러 나라가 있었어요. 마우리아 왕조의 중요성은 나라가 없던 곳에 처음 나라를 세웠다는 데 있지 않아요. 이전보다 훨씬 넓은 지역을 하나의 왕조 아래 묶었다는 데 있어요.

아소카왕 때에는 인도 아대륙의 대부분을 아우르는 큰 제국이 되었어요. 그러나 남부 일부에는 독립된 나라들이 있었어요. 교과서의 ‘통일’은 이런 넓은 지역의 정치적 통합을 가리키는 표현이지, 모든 지역을 빠짐없이 차지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답

칼링가를 정복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죽거나 삶의 터전을 잃는 고통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칼링가는 인도 동부 해안에 있던 지역이에요. 아소카왕은 이곳을 공격해 마우리아 왕조의 지배 아래 두었어요. 정복은 다른 나라나 지역을 무력으로 차지하는 일이에요.

아소카왕이 남긴 비문에는 칼링가 전쟁의 피해를 후회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비문은 돌 같은 단단한 물체에 새긴 글이에요. 이 기록에서는 전쟁으로 죽거나 끌려간 사람들뿐 아니라, 가족과 이웃을 잃은 사람들의 고통도 이야기해요. 전쟁에서 이겼다는 사실만으로 그 피해가 사라지지는 않았던 거예요.

교과서에는 ‘아소카왕이 전쟁의 참상을 보고 불교에 귀의했다’고 나오기도 해요. 귀의는 어떤 종교를 믿고 따르게 되는 것을 말해요. 아소카왕의 비문에는 칼링가 전쟁의 고통을 후회하며, 무력보다 바른 행동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일을 중시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는 전쟁을 반성하며 불교를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그 가르침을 나라를 다스리는 데 반영하려 했어요.

답

아니에요. 아소카왕의 다르마는 불교의 영향을 받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불교 신앙을 강요하기보다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행동 원칙을 강조했어요.

‘다르마’는 ‘담마’라고도 하며, 쓰이는 맥락에 따라 가르침이나 올바른 도리 등을 뜻해요. 여기서는 아소카왕이 백성에게 권한 삶의 원칙을 가리켜요. 부모와 어른을 공경하기, 생명을 함부로 해치지 않기, 다른 종교를 존중하기 등이 그 내용이에요.

아소카왕은 불교를 믿고 후원했어요. 그렇다고 그의 제국에 사는 모든 사람이 불교 신자였던 것은 아니에요. 서로 다른 믿음과 생활 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었지요. 아소카왕은 자기 종교만 높이며 다른 종교를 함부로 깎아내리는 태도를 경계했어요.

넓은 제국을 다스리는 왕에게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지킬 원칙이 필요했어요. 서로를 존중하자는 가르침은 갈등을 줄이고 왕의 통치를 받아들이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소카왕의 다르마 정책에는 종교적 믿음과 나라를 다스리려는 목적이 함께 담겨 있었어요.

Q05 왜 왕의 뜻을 돌기둥에 새겼나요? 글을 못 읽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요.

답

왕의 뜻을 오래 남기고 여러 지역에 알리기 위해서였으며, 글을 직접 읽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읽어 주거나 말로 전할 수 있었어요.

아소카왕은 돌기둥(석주)이나 바위에 칙령을 새기게 했어요. 칙령은 왕이 내린 명령이나 널리 알리는 글을 뜻해요. ‘비문’이 돌 등에 새긴 글이라는 뜻이라면, ‘칙령’은 그 글이 왕의 뜻을 담고 있다는 점을 나타내요. 따라서 돌에 새긴 칙령은 비문이기도 해요.

왕은 넓은 영토의 모든 마을을 직접 찾아갈 수 없었어요. 여러 지역에 글을 새겨 두면 관리들이 왕의 뜻을 알 수 있고, 그 내용을 주민에게 전달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어요. 아소카왕의 칙령에는 일정한 때에 그 내용을 사람들에게 들려주도록 하는 지시도 있어요.



돌기둥 곁에서 왕의 뜻을 주민에게 전하는 모습을 그린 상상도예요. 가운데 사람이 말하고 오른쪽의 사람들이 듣고 있어요. 돌에 새긴 내용은 이런 식으로 말로도 전해질 수 있었으므로, 주민 모두가 글을 직접 읽을 줄 알아야만 왕의 뜻을 알 수 있었던 것은 아니예요.

오늘날에는 이 비문을 통해 당시 왕이 어떤 정치를 내세웠는지 알 수 있어요. 다만 왕이 ‘이렇게 하겠다’고 밝힌 것과 실제 모든 지역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은 같지 않아요. 비문은 아소카왕이 추구한 방향을 보여 주는 중요한 자료예요.

답

아니에요. 아소카왕은 왕의 권력을 유지하면서, 관리와 여러 정책을 통해 백성을 돌보는 정치를 내세웠어요.

교과서에 나오는 중앙 집권은 나라의 중심인 왕과 중앙 정부에 권력이 모이는 것을 말해요. 중앙 정부는 나라 전체의 일을 맡는 중심 기관이에요. 왕이 관리를 보내 지역을 다스리고 명령을 전달하는 일은 중앙 집권을 뒷받침해요.

아소카왕은 다르마를 강조한 뒤에도 관리들을 통해 나라를 다스렸어요. 관리들이 백성을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다르마와 관련된 일을 맡는 관리도 두었어요. 길가에 나무를 심고 우물을 마련하는 등 사람과 동물을 돌보는 정책도 내세웠어요.

왕이 백성을 돌보는 정책을 펴면 사람들은 그 왕의 통치를 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왕의 힘은 전쟁에서 이기는 것뿐 아니라, 넓은 지역을 관리하고 생활을 안정시키는 데서도 나올 수 있었어요. 따라서 불교를 후원하고 폭력을 줄이려 한 태도를 왕권의 포기나 같은 뜻으로 볼 수는 없어요.

다만 넓은 제국의 모든 지역을 똑같은 방식과 강도로 다스린 것은 아니었어요. 중앙 집권을 설명할 때에도 왕이 모든 마을의 일까지 직접 결정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답

탑과 승려에 대한 후원은 신앙의 중심을 마련하고, 불교의 가르침을 배우고 전하는 활동을 이어 가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후원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돈이나 물건, 장소 등을 지원하는 것이에요. 승려는 가정생활을 떠나 불교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수행은 생각과 말, 행동을 다듬고 깨달음을 구하는 실천이에요. 수행하고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에게도 음식과 머물 곳은 필요했어요.

불교의 탑은 처음에는 부처 등의 사리를 모시는 데서 출발했어요. 사리는 부처나 존경받는 승려가 세상을 떠난 뒤 남긴 유골 등을 가리켜요. 인도 초기의 탑은 ‘스투파’라고 부르며, 둥글게 솟은 언덕 같은 모습이 대표적이에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여러 층의 돌탑과 생김새가 다를 수 있어요.



초기 불교의 탑 건립과 후원을 함께 나타낸 상상도예요. 왼쪽 사람들은 둥근 탑에 벽돌을 쌓고, 오른쪽 사람들은 승려에게 곡식 바구니와 물 항아리를 가져와요. 건물을 마련하는 일과 생활을 돕는 일은 모두 불교 활동을 이어 가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특정한 하루의 실제 장면을 복원한 그림은 아니에요.

아소카왕은 탑을 세우는 등 불교를 후원했어요. 왕뿐 아니라 지역의 신자들도 음식이나 물건을 지원하며 불교 공동체를 도왔지요. 신자들이 예배하고 모일 곳, 승려들이 가르침을 배우고 전할 여건이 마련되면 불교가 이어지고 널리 알려지는 데 도움이 돼요.

교과서에 나오는 산치 대탑은 초기 건립이 아소카왕 시대와 연결되는 유적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보이는 큰 탑의 모습과 조각으로 장식한 문은 후대의 증축과 장식도 거친 결과예요. 사진 속 모든 부분이 아소카왕 때 한꺼번에 만들어졌다고 보아서는 안 돼요.

불경은 불교의 가르침을 모아 놓은 것이예요. 불교 전통에서는 아소카왕의 후원 아래 승려들이 모여 부처의 가르침을 함께 외우며 확인하고 정리했다고 전해요. 이렇게 승려들이 모여 가르침을 확인하고 정리하는 일을 결집이라고 해요. 가르침이 정리되어 있으면 여러 지역으로 같은 내용을 전하기 쉬워요.

답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의 이동과 왕의 후원, 현지 사람들의 수용이 이어지면서 불교가 스리랑카에 자리 잡았어요.

스리랑카는 인도 남쪽에 있는 큰 섬이자 오늘날의 나라 이름이에요. 바다는 사람들의 이동을 막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배를 이용하면 물건뿐 아니라 사람과 가르침도 건너갈 수 있었어요. 교역은 물건을 사고파는 활동이고, 전파는 문화나 종교 등이 다른 곳으로 퍼지는 일이에요.

스리랑카의 불교 전승에서는 아소카왕의 아들인 마힌다 등이 기원전 3세기에 이곳으로 와서 불교를 전했다고 이야기해요. 전승은 오랫동안 전해 내려온 이야기나 기록을 말해요. 이 내용은 아소카왕의 후원과 스리랑카 불교의 시작을 연결해 설명할 때 등장해요.

하지만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이 한 번 찾아왔다고 해서 종교가 저절로 널리 퍼지는 것은 아니에요. 현지의 왕과 주민이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수행하거나 가르치는 사람을 돕고, 다음 세대에 전하는 과정이 필요했어요. 스리랑카에는 불교 사원이 자리 잡고 불교를 배우고 전하는 활동이 이어졌어요.

종교가 전해진 지역과 한 왕조가 지배한 영토는 서로 달라요. 스리랑카에 불교가 전해졌다는 사실을 마우리아 왕조가 스리랑카를 정복했다는 뜻으로 읽으면 안 돼요.

답

스스로 수행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을 중시했다는 뜻이며, 다른 사람을 돕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상좌부 불교는 초기 불교의 가르침과 수행 전통을 이어 온 불교의 한 흐름이에요. 스리랑카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발전했어요. 교과서는 그 특징으로 출가한 승려의 수행과 계율, 개인의 해탈을 중요하게 설명해요. 출가는 가정생활을 떠나 수행자의 생활을 하는 것이고, 계율은 수행자가 지켜야 할 생활 규칙이에요.

해탈은 욕심이나 원하는 것을 놓지 못하는 집착 등에서 생기는 괴로움과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해요. 윤회는 죽은 뒤 다시 태어나는 일이 반복된다고 보는 생각이에요. ‘개인의 해탈’에서 강조하는 점은 누군가가 대신 수행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가르침을 실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혼자만 잘 살라는 가르침은 아니에요. 상좌부 불교에서도 다른 존재의 고통을 덜어 주려는 자비와 가진 것을 나누는 보시를 중요하게 여겨요. 출가하지 않은 신자가 승려에게 음식을 드리고, 승려는 가르침을 전하는 관계도 이어졌어요.

따라서 상좌부 불교를 믿는 사람이 모두 가정을 떠났던 것도 아니에요. 승려의 수행을 중시한다는 특징과 신자들이 일상에서 불교를 실천했다는 사실은 함께 이해할 수 있어요.

Q10 동남아시아의 상좌부 불교도 아소카왕 때 한꺼번에 퍼졌나요?

답

아니에요. 아소카왕 시대의 스리랑카 전래와, 훨씬 뒤 여러 동남아시아 사회에서 상좌부 불교가 성장한 과정은 시간 차이가 있어요.

동남아시아는 인도 동쪽과 중국 남쪽에 있는 넓은 지역이에요. 오늘날 미얀마와 타이(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등에서는 상좌부 불교가 중요한 종교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렇다고 이 지역 전체가 같은 때 같은 과정을 거쳐 불교를 받아들인 것은 아니에요.

교과서 지도에 인도에서 스리랑카를 거쳐 동남아시아로 이어지는 화살표가 있으면, 불교가 옮겨 간 큰 흐름을 간추린 것으로 볼 수 있어요. 화살표 하나가 한 번의 여행이나 같은 해에 일어난 일을 뜻하는 것은 아니에요.

스리랑카와 동남아시아 사이에서는 오랜 기간 승려들이 오가며 가르침과 계율을 배우고 전했어요. 바다를 통한 교류와 각 지역 왕들의 후원도 영향을 주었어요. 예를 들어 타이의 수코타이 왕국에서는 13~14세기에 불교 사원과 불교 문화가 크게 발전했어요. 기원전 3세기의 아소카왕 시대와는 아주 멀리 떨어진 시기예요.

구분	시기와 의미
아소카왕의 후원과 스리랑카 전래	기원전 3세기의 불교 전파와 연결되는 이야기예요.
동남아시아 여러 지역의 상좌부 불교 성장	이후 오랜 교류와 각 지역의 수용·후원이 이어진 과정이에요. 지역마다 시기와 모습이 달랐어요.

왕 한 명이 모든 지역에 불교를 전했다고 생각하면, 가르침을 주고받은 사람들과 현지 사회의 역할을 놓치게 돼요.

답

아니에요. 다른 지역에 불교 공동체와 후원자가 자리 잡으면, 마우리아 왕조의 힘이 약해져도 불교가 이어질 수 있었어요.

쇠퇴는 세력이나 힘이 점차 약해지는 것을 말해요. 마우리아 왕조는 아소카왕 뒤에도 한동안 이어졌지만, 점차 힘을 잃고 무너졌어요. 왕조가 사라지면 그 왕조의 후원을 받던 종교 활동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모든 지역에서 그 종교가 사라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미 스리랑카 같은 지역에는 불교를 믿는 사람들과 사원, 수행하고 가르치는 승려들이 있었어요. 현지 왕과 신자들이 이들을 계속 도울 수도 있었지요. 불교가 한 왕의 지원에만 기대지 않고 여러 지역 사람들의 생활 속에 뿌리를 내린 거예요.

인도에서는 불교가 여러 세기에 걸쳐 점차 약해졌고, 오늘날에는 전체 인구에서 불교 신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요. 반면 스리랑카와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는 오늘날까지 중요한 종교로 이어지고 있어요. 왕실의 후원, 다른 종교와의 관계, 사회와 정치의 변화 등이 지역마다 다르게 작용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아소카왕이 죽자 인도의 불교가 곧 사라졌다’고 연결하면 시기와 원인을 잘못 짚게 돼요. 인도에서도 아소카왕 이후 여러 세기 동안 불교 활동과 문화가 이어졌어요.

답

오늘날 인도의 국가 문장은 사르나트의 사자 기둥머리를 바탕으로 만들었고, 국기에는 ‘아소카 차크라’라는 바퀴 문양이 들어 있어요.

국가 문장은 나라를 나타내는 공식 상징 무늬예요. 여기서 ‘문장’은 글의 한 문장이 아니라 상징 그림을 뜻해요. 사르나트는 인도 북부에 있으며, 석가모니가 처음으로 가르침을 편 곳으로 전해져요. 이곳의 아소카왕 시대 돌기둥 위에는 네 마리의 사자가 등을 맞댄 조각이 있었어요. 기둥의 맨 위 장식 부분을 기둥머리, 또는 주두라고 불러요.

오늘날 인도의 국가 문장은 이 사자 기둥머리를 바탕으로 만들었어요. 조각 전체를 아무 변화 없이 옮긴 것은 아니예요. 정면에서 보이는 사자들을 중심으로 나라의 상징에 맞게 나타냈어요.

인도 국기의 가운데 흰색 띠에는 짙은 파란색의 바퀴가 있어요. 이 바퀴가 아소카 차크라이며, 바퀴살은 24개예요. 국가 문장의 사자 조각과 국기의 바퀴 문양은 구분해야 해요. 둘 다 아소카왕 시대의 상징과 연결되지만, 국기 한가운데 사자 조각이 들어 있는 것은 아니예요.

옛 상징을 오늘날에 사용한다고 해서 마우리아 왕조가 지금까지 이어졌다는 뜻은 아니예요. 오늘날의 나라가 오래된 역사와 문화에서 상징을 가져온 사례예요.

확인 문제

확인 01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마우리아 왕조를 세운 사람은 ㉠ _____이며, 그 손자로서 불교를 후원한 왕은
㉡ _____ 이에요.

확인 02

마우리아 왕조의 '통일'을 바르게 설명한 것을 하나만 고르세요.

- ① 나라가 없던 인도에 처음으로 나라를 세웠어요.
- ② 오늘날 인도의 국경 안쪽만 정확히 지배했어요.
- ③ 넓은 지역을 통합했지만 남부 일부는 제외됐어요.
- ④ 인도와 스리랑카의 모든 지역을 직접 지배했어요.

답

확인 03

아소카왕이 칼링가 전쟁을 후회한 까닭으로 맞는 것을 하나만 고르세요.

- ① 전쟁에 패하여 마우리아 왕조의 영토를 빼앗겼기 때문이에요.
- ②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죽거나 삶의 터전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 ③ 전쟁 뒤 왕권을 버리고 나라를 다스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 ④ 칼링가 주민 모두를 불교 신자로 바꾸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답

확인 04

아소카왕이 다르마를 강조한 정치를 바르게 설명한 것을 하나만 고르세요.

- ① 제국의 모든 백성에게 반드시 불교를 믿으라고 명령했어요.
- ② 다른 종교의 사람들은 제국을 떠나도록 하라고 명령했어요.
- ③ 부모를 공경하는 일보다 전쟁의 승리만 중요하다고 했어요.
- ④ 여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며 살도록 권했어요.

답

확인 05

괄호 안에서 알맞은 말을 고르세요.

왕이 내린 명령이나 널리 알리는 글은 (㉠ 칙령 / 계율)이라고 해요. 그 내용을 돌기둥에 새긴 글은 (㉡ 비문 / 주두)이기도 해요.

확인 06

아소카왕의 통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하나만 고르세요.

- ① 관리들을 통해 나라를 다스리며 백성을 돌보는 정치를 내세웠어요.
- ② 다르마를 강조한 뒤에는 관리들을 없애고 지역을 다스리지 않았어요.
- ③ 불교를 후원한 뒤에는 왕위를 내놓고 제국의 정치를 그만두었어요.
- ④ 중앙 집권을 했기 때문에 모든 마을의 일을 왕이 직접 처리했어요.

답

확인 07

불교 탑과 후원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하나만 고르세요.

- ① 초기 인도의 탑은 처음부터 오늘날 한국의 여러 층 돌탑과 같았어요.
- ② 왕이 탑을 세운 뒤에는 음식이나 물건을 지원하는 후원이 필요 없었어요.
- ③ 산치 대탑은 지금 보이는 장식까지 모두 아소카왕 때 완성되었어요.
- ④ 탑 건립과 생활 지원은 신앙과 가르침을 이어 가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답

확인 08

스리랑카에 불교가 자리 잡은 과정을 바르게 설명한 것을 하나만 고르세요.

- ① 종교가 전해졌으므로 마우리아 왕조의 영토가 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 ② 가르침을 전한 사람의 활동과 현지 사회의 수용이 함께 작용했어요.
- ③ 아소카왕이 직접 섬의 모든 마을을 찾아가 불교를 가르친 결과였어요.
- ④ 현지 왕과 주민의 관심은 불교가 이어지는 데 영향을 주지 않았어요.

답

확인 09

상좌부 불교의 ‘개인의 해탈’을 바르게 이해한 것을 하나만 고르세요.

- ① 자신의 해탈만 중요하므로 다른 사람의 고통은 외면하라는 뜻이에요.
- ② 신자는 모두 가정을 떠나야 하며 일상에서는 수행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 ③ 스스로 수행을 실천해야 한다는 뜻이며 자비와 나눔도 중요하게 여겨요.
- ④ 승려에게 음식을 드리면 자신의 실천 없이 해탈이 보장된다는 뜻이에요.

답

확인 10

불교 전파 지도에 ‘인도 → 스리랑카 → 동남아시아’라는 화살표가 있어요. 이를 바르게 읽은 것을 하나만 고르세요.

- ① 여러 시기의 교류와 현지의 수용을 간추린 큰 흐름으로 볼 수 있어요.
- ② 모든 지역이 아소카왕의 명령 한 번으로 동시에 불교를 믿게 되었어요.
- ③ 화살표가 닿는 곳은 모두 마우리아 왕조가 직접 지배한 영토였어요.
- ④ 세 지역의 불교는 현지 사회의 영향 없이 같은 모습으로 유지되었어요.

답

확인 11

“마우리아 왕조가 무너지면 스리랑카의 불교도 반드시 사라져요.”라는 말이 옳지 않은 까닭을 현지의 후원이나 불교 공동체와 관련지어 한 문장으로 쓰세요.

답

확인 12

오늘날 인도의 상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을 하나만 고르세요.

- ① 국가 문장 — 산치 대탑 전체 모습 / 국기 가운데 — 네 마리의 사자
- ② 국가 문장 — 아소카왕의 얼굴 모습 / 국기 가운데 — 둥근 불교 탑
- ③ 국가 문장 — 다르마를 새긴 글 전체 / 국기 가운데 — 인도 영토의 지도
- ④ 국가 문장 — 사자 기둥머리의 모습 / 국기 가운데 — 바윗살 24개의 바퀴

답

정답과 해설

확인 01 정답과 해설

정답 ㉠ 찬드라굽타 마우리아 / ㉡ 아소카왕

찬드라굽타 마우리아는 왕조를 세운 사람이고, 아소카왕은 그의 손자로서 불교를 후원한 왕이에요. 아소카왕을 왕조의 창건자나 불교를 처음 만든 사람으로 혼동하지 않아야 해요.

답을 확인하는 기준

㉠은 ‘찬드라굽타’, ㉡은 ‘아소카’라고 써도 돼요.

다시 읽기 Q01

확인 02 정답과 해설

정답 ③

마우리아 왕조는 인도 북부를 중심으로 넓은 지역을 통합했지만, 남부 일부의 독립된 나라들까지 모두 지배한 것은 아니에요.

- ①이 아닌 이유 마우리아 왕조 이전에도 인도에는 여러 나라가 있었어요.
- ②이 아닌 이유 고대 제국의 영토와 오늘날 인도의 국경은 일치하지 않아요.
- ④이 아닌 이유 남부 일부가 지배 밖에 남아 있었고, 스리랑카에 불교가 전해진 것을 직접 지배의 증거로 볼 수도 없어요.

다시 읽기 Q02·Q08

확인 03 정답과 해설

정답 ②

아소카왕은 칼링가를 정복했지만, 사람들이 죽거나 강제로 다른 곳으로 끌려가고 가족을 잃은 고통을 후회한다고 비문에 남겼어요.

- ①이 아닌 이유 아소카왕은 이 전쟁에서 패한 것이 아니라 칼링가를 정복했어요.
- ③이 아닌 이유 아소카왕은 전쟁 뒤에도 왕권을 유지하며 나라를 다스렸어요. 왕권을 버린 것을 후회한 것이 아니라, 전쟁이 사람들에게 준 고통을 후회했어요.
- ④이 아닌 이유 주민 모두를 불교 신자로 만들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아소카왕은 다른 종교도 존중하도록 권했고, 비문에서 후회한 것은 전쟁의 피해였어요.

다시 읽기 Q03·Q04·Q06

확인 04 정답과 해설

정답 ④

아소카왕은 여러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며 살도록 권했어요. 불교를 후원했다는 사실과 모든 사람에게 불교 신앙을 강요했다는 말은 달라요.

- ①이 아닌 이유 다르마는 모든 백성에게 불교를 믿으라고 강요하는 명령이 아니라, 서로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지킬 행동 원칙을 강조한 것이에요.
- ②이 아닌 이유 다른 종교를 존중하도록 권했으므로, 다른 종교의 사람들을 모두 내보내려 했다는 설명은 맞지 않아요.
- ③이 아닌 이유 부모 공경과 생명 존중 등이 다르마의 내용이에요. 전쟁의 승리만 중요하게 여긴 것이 아니에요.

다시 읽기 Q04

확인 05 정답과 해설

정답 ㉠ 칙령 / ㉡ 비문

칙령은 왕이 내린 명령이나 알리는 글이라는 뜻이고, 비문은 돌 등에 새긴 글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는 글의 성격을, 다른 하나는 새겨 놓은 형태를 설명하므로 같은 글에 두 말을 함께 쓸 수 있어요.

‘계율’은 수행자가 지켜야 할 생활 규칙이고, ‘주두’는 기둥머리예요. 둘 다 왕의 명령을 새긴 글의 이름과는 달라요.

다시 읽기 Q05·Q09·Q12

확인 06 정답과 해설

정답 ①

아소카왕은 관리와 여러 정책을 통해 나라를 다스리면서 백성을 돌보는 정치를 내세웠어요. 폭력을 줄이려 한 태도가 왕권을 포기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②이 아닌 이유 관리들을 없앤 것이 아니라, 관리들에게 백성을 공정하게 대하도록 당부하고 다르마와 관련된 일을 맡기기도 했어요.

③이 아닌 이유 불교 후원을 이유로 왕위를 내놓고 정치를 그만둔 것은 아니에요.

④이 아닌 이유 중앙 집권은 왕과 중앙 정부에 권력이 모인다는 뜻이에요. 왕이 모든 마을의 일을 혼자 직접 처리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시 읽기 Q06

확인 07 정답과 해설

정답 ④

탑은 신앙의 중심이 될 수 있었고, 음식과 머물 곳에 대한 지원은 승려들이 수행하고 가르침을 전하는 활동을 이어 가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 ①이 아닌 이유 초기 인도의 스투파는 둥글게 솟은 언덕 같은 형태가 대표적이예요. 여러 층으로 된 돌탑과 처음부터 같은 모습은 아니었어요.
- ②이 아닌 이유 탑이 세워진 뒤에도 승려에게는 음식과 머물 곳이 필요했어요. 건물을 세우는 일 외에 생활을 돕는 후원도 중요했어요.
- ③이 아닌 이유 산치 대탑은 후대에 규모가 커지고 장식이 더해졌어요. 현재 보이는 모습을 모두 아소카왕 시대의 것으로 볼 수는 없어요.

다시 읽기 Q07

확인 08 정답과 해설

정답 ②

불교를 전하는 사람의 이동과 활동에 더해, 현지 사람들의 수용과 후원이 이어져야 불교가 자리 잡을 수 있었어요.

- ①이 아닌 이유 종교의 전파 범위와 왕조의 영토는 달라요. 불교가 전해졌다는 사실만으로 정복과 직접 지배를 뜻하지는 않아요.
- ③이 아닌 이유 전승에서는 마힌다 등이 불교를 전했다고 이야기해요. 아소카왕이 섬의 모든 마을을 직접 찾아가 가르쳤다는 내용이 아니예요.
- ④이 아닌 이유 현지 왕과 주민의 관심과 후원은 사원과 공동체가 이어지는 데 영향을 주었어요.

다시 읽기 Q08

확인 09 정답과 해설

정답 ③

자신의 수행과 실천을 중시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돕는 자비와 보시를 외면하는 것은 아니에요.

①이 아닌 이유 다른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비와 보시도 중요하게 여겨요.

②이 아닌 이유 출가한 승려뿐 아니라 가정생활을 하는 신자들도 불교를 실천했어요.

④이 아닌 이유 음식을 드리는 보시는 나눔의 실천이지만, 그것만으로 자신의 수행 없이 해탈이 보장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시 읽기 Q09

확인 10 정답과 해설

정답 ①

지도는 오랜 시간에 걸친 전파와 교류를 간추려 보여 줄 수 있어요. 스리랑카 전래와 동남아시아 여러 사회의 상좌부 불교 성장은 시기와 과정이 달랐어요.

②이 아닌 이유 한 왕의 명령 한 번으로 모든 지역이 동시에 같은 종교를 믿게 된 것은 아니에요.

③이 아닌 이유 종교의 전파를 나타낸 화살표가 왕조의 지배 범위를 뜻하지는 않아요.

④이 아닌 이유 각 지역의 왕과 주민이 받아들이고 후원하는 과정에서 지역마다 다른 역사와 문화가 함께 작용했어요.

다시 읽기 Q08·Q10

확인 11 정답과 해설

예시 답 스리랑카의 왕과 신자들이 현지의 사원과 승려를 계속 후원하면 마우리아 왕조가 무너져도 불교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한 왕조가 종교를 후원한 것은 중요하지만, 이미 다른 지역에 자리 잡은 공동체가 그 왕조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에요. 각 지역의 사람들이 가르침을 배우고 전하며 활동을 이어 갈 수 있어요.

답을 확인하는 기준

현지의 후원이나 불교 공동체가 불교를 이어 갈 수 있다는 뜻이 있으면 맞아요.
‘스리랑카의 승려와 신자들이 계속 가르침을 전할 수 있어서’라고 써도 돼요. ‘불교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서’라는 답은 지역에 따라 종교가 변하거나 쇠퇴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지 못해요.

다시 읽기 Q11

확인 12 정답과 해설

정답 ④

국가 문장은 사르나트의 사자 기둥머리를 바탕으로 만들었어요. 국기 가운데에는 짙은 파란색의 아소카 차크라가 있으며 바퀴살은 24개예요.

- ①이 아닌 이유 국가 문장을 산치 대탑 전체로 나타낸 것이 아니며, 국기 가운데에도 사자들이 들어 있지 않아요.
- ②이 아닌 이유 국가 문장은 아소카왕의 얼굴이 아니에요. 국기 가운데에는 탑이 아니라 바퀴 문양이 있어요.
- ③이 아닌 이유 국가 문장이 다르마 칙령의 글 전체인 것은 아니며, 국기 가운데에도 인도 지도가 들어 있지 않아요.

다시 읽기 Q12

대치동 재우쌤 · <https://leessaem.com/> · <https://blog.naver.com/leessaem84>